

8년 만에 도착한 인터넷 주문 상품

캐나다의 한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무려 8년 만에 배송됐다.

캐나다 CBC방송은 최근 토론토에 살고 있는 엘리엇 베린스타인(Elliot Berinstein)이 자신이 오타와에 살 때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상품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 인터넷 주문 상품을 8년 만에 수령한 엘리엇과 물품 송장. 사진=CBC방송

의사인 엘리엇은 8년 전 인터넷 쇼핑으로 6.95캐나다달러짜리 헤어크림을 주문했다. 하지만 주문한 상품은 수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물건을 주문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토론토로 이사했다.

그런데 그는 지난달 6일 택배 상자 하나를 받았다. 발송인이 현지 인터넷 쇼핑몰인 '웰'(Well.ca)이었다. 그는 상자 안에서 헤어크림 한 개를 발견했다. 이후 상자 속에 동봉된 명세서를 보다가 결제 일자가 2012년 8월 1일로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자신이 8년 전 이 사이트에서 헤어크림 한 개를 주문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당시 그는 유행하던 남성용 헤어크림을 웰을 통해 주문했다. 헤어크림을 구매하는데 쓴 돈은 배송비를 포함

해 6.95캐나다달러. 이사하기 전 현재의 주소를 인터넷 쇼핑몰에 알려 주기는 했지만 8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헤어크림이 배송됐을 때 깜짝 놀라면서도 당혹스럽기까지 했고 그는 회상했다.

또 그는 상품을 배송한 택배사가 캐나다 우체국으로 돼 있어 운송장 번호를 검색해 봤지만 무효로 나와 '상품이 창고에서 누락됐던 것일까' 등 온갖 생각 떠올라 화가

나기보다 웃음이 치밀었다고 말했다. 캐나다 우체국 측도 현재 이번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이례적이며,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연을 접한 웰의 한 관계자는 엘리엇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그에게 보상의 의미로 신상 헤어크림을 포함해 온갖 상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는 "8년 전 주문한 헤어크림을 써 본 적이 없어 검색해 보니 내용물은 원래 흰색이지만 8년 만에 내게 온 것은 노란색"이라면서 "이제 이 헤어크림은 사용할 수 없지만 새로 보내준 제품은 머리를 자른 뒤 꼭 사용해보겠다."고 말했다.

100만 달러 '보물 찾기' 주인공 탄생

로키산맥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100만 달러 어치의 보물을 둘러싼 '보물찾기'가 10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거주하는 골동품 거래상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억만장자인 포레스트 펜(89)은 1988년 간암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이 평생 모은 금



괴와 보석, 황금 등 전 등을 가로 25cm·세로 25cm·높이 25cm의 상자(사진)에 담아 로키산맥 어딘가에 숨겨 놓았다.

그리고 10년 전인 2010년, 보물을 찾는 단서를 담은 자서전 '스릴 넘치는 추억'(The Thrill of the Chase)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보물이 묻힌 장소에 관한 9개의 힌트를 담은 시(詩)가 포함돼 있었다.

시구의 내용은 따뜻한 물이 정체된 곳(where warm waters halt) / 협곡으로 떨어져 (And take it in the canyon down) / 멀지는 않지만 걷기에 먼 곳(Not far, but too far to walk) / 브라운의 고향 아래에 묻힌 곳(Put in below the home of Brown) 등이다.

지난 7일, 펜은 현지 언론인 산타페뉴멕시코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50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 헤메 보물을 찾은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밝혔다.

펜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행운의 주인공은 로키산맥에서 자신이 찾은 보물의 흔적을 펜에게 사진으로 전송했고, 펜은 그것이 10년 전 사진이 숨긴 보물이 맞다는 것을 완벽하게 확인했다.

펜은 "50만 명이 참여했던 지난 10년은 내게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보물이 찾아진 현재는 내 기분이 기쁘지 슬픈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펜은 자신이 보물을 숨긴 장소와 이 보물을 찾은 사람 등의 정보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보물의 가치는 100만 달러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객석 70% 철거한 독일 유명 극장

독일의 한 국립극단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용극장 관객석을 70%까지 없애는 대책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 객석 철거 전(왼쪽)과 후(오른쪽) 사진. 사진=KBS 화면 캡처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있는 전용극장 슈프

바우어담 극장의 객석 700석 중 500석을 철거하고 200석만 남겨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사실은 이 극단이 최근 트위터 등 SNS에 공유한 극장 객석 철거 전후 사진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극장의 객석들은 한 명 또는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객석이 앞뒤로 한 줄씩, 양옆으로 객석 두 개분 정도 거리를 두고 배치됐다. 극단은 오는 9월 극장을 재개관할 계획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관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끝에 객석 대

폭 철거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극단의 올리버 리스 예술감독은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제 객석은 또 단순하게 빈자리가 즐비한 곳이 아니라 설치 미술

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극단에 따르면, 극장이 재개관 되면 관객이 입장할 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티켓은 비접촉 방식으로 확인하고 객석에 앉는 순서 역시 엄격하게 규제할 예정이다.

또 관객들은 6명씩 서로 거리를 두고 안내돼 자기 자리에 앉기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밀집된 환경으로 인한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 개개의 관객이나 커플 또는 작은 그룹 간에는 1.5m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